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영암군, 가뭄 공동 대응...양수장 24시간 가동

✎ 김준혁(=호남) 기자 | ⓒ 승인 2026.08.14 10:26

저수율 43.8%·평년 대비 69.4%...말단부 간단급수·야간순찰 비상 대응
영암군 살수차 천수답 직접급수...기관 협력으로 미급지 용수 공급 총력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와 영암군이 가뭄 극복을 위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농업용수 공급에 나섰다 [사진제공=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

[폴리뉴스 김준혁(=호남)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와 영암군이 가뭄 극복을 위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농업용수 공급에 나섰다.

영암지사(지사장 전지영)에 따르면 현재 관리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43.8%로 평년 대비 69.4% 수준이다. 7월부터 이어진 폭염과 강수 부족으로 용수 수요량은 늘어나는 반면 저수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양 기관은 지난 7월 31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가뭄 현황과 저수율을 공유하며 용수공급이 어려운 말단부 구역에 우선 공급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했다. 영암지사는 대형 양수장을 24시간 연속 가동해 심각 단계 저수지 물채우기를 추진하고 급수부족 구역에는 간단급수(공급일수 조절)를 실시하며 말단부 급수를 위한 수문 조절과 야간순찰도 강화하고 있다. 영암군은 살수차를 활용해 천수답 등 용수공급이 어려운 미급지에 직접 급수를 실시하며 협력에 나서고 있다.

전지영 영암지사장은 "앞으로도 영암군과 협력해 저수율과 급수 여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혁(=호남) 기자 junjun6816@naver.com